

200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200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2005

2005년 동성애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200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편 집 _ 동성애자인권연대

펴낸일 _ 2005년 9월 23일

펴낸곳 _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e mail _ lgbtpride@empal.com

전 화 _ 02_778_9982

fax _ 02_775_9983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내림비치

1.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

-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고뇌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 Teddy Bear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삶 - 페이, 태원
- 나는 현재 19살의 청소년이다. - 시우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2. 청소년 성소수자와 상담

- 하경희 _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

3.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발달과 사회 심리적 고통

- 여기동 _ 정신과 간호사, 前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4.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 홍의표 _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5. 학교와 동성애

- 홍의표 _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6.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 정윤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붙임자료

"MBC의 청소년 동성애자 혐오 보도, 이제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행동할 때이다."
- 이경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MBC 뉴스투데이 '현장속으로' _ 10대 청소년 이반문화 확산" 관련
1,2차 성명서

1.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고뇌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

청소년 성소수자 - 'TEDDY BEAR'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들과 겉보기엔 비슷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내면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생활을 해나가며 듣게 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호모포비아적 언행들로 인해 자신의 본질이 '변태적 성행위를 즐기는 비윤리적 존재'일 뿐이라 생각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절망하다가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청소년성소수자인 나는 지금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항상 묻던 말이다.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또 한 동성애자로서 나는 내 역할에 대한 주위의 기대와 결과물에 대한 평가들 속에서 항상 정체성에 대한 나의 진실을 밀바탕으로 삼고는 했었다. 한 때 나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도 나는 결국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피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결말은 '외톨이'로 매

습지어질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나에게 '외톨이'란 굉장히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었다. 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회가 가진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

나는 나중에야 여러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동성애 인권운동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품고 차별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중이다. 결코 최악이 되어서도, 차별받아서도 안 될 이유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또는 내 자신에 의해 억압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이제 몇몇한 사람이다.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느꼈던 억압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에게 지난 11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심정을 말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동안 정말 이해해주리라 생각한 두 명의 지인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그 후로 어색해져서 더 이상 용기가 나질 않았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동성애자를 호모라 하거나 변태로 비난하는 것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깊이 박혀있다. 특히나 교사들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난 항상 불만족스러웠다. 동성애는 사회악이라 격하시킨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는, 자신이 수업하고 있는 이 교실 안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두려워했다. 난 교사들의 소양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학생의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들의 언행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담소 중 어느새 동성애에대한 이야깃거리가 나온다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학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 또한 친한 여학생과의 대화중에 충격을 받았다.

"징그러워, 정말 싫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안 볼 거야."

정말 날 이해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것 정도는 별 것 아니라 말해 줄 거라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서러웠다. 그 후로 그 친구와는 겉으로 전과 같이 지내지만 난 그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이다. 친구들이 동성애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동성애에대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아쉬울 뿐이다.

나는 또한 한 가정의 일원이다. 게다가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장남이다. 그 사실은 나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올려놓았다. 나이를 먹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나이인데도 이성의 애인이 없는 것은 물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지 않아하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의아해 하실까? 육체적으로는 건장한 청년일 텐데 말이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보아왔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인 가족의 유대를 잃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외로움'을 향한 지름길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청소년 동성애자는 커밍아웃을 하는 그 순간 기댈 곳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다행이도 나는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처음 했을 때만 어려웠고 힘들었으나 지금은 별 다를 바 없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평생 나의 걱정을 하면서 나를 나중에는 이성애자가 되어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항상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사회적 억압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MBC에서 방영된 '뉴스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청소년 비행의 한 부류라고 단정 짓고 부정적인 어감이 짙은 '이반문화'라 보도한 사건이 있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정말 왜곡된 시각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사실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던져주는 호모포비아적 정보들이 두려웠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력을 지닌 매체에서 사회약자를 다룰 때에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처럼 많은 사회적인 것들에게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던져준다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인인 동성애자나 청소년들보다 더한 정신적 괴로움을 안고 지낸다.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위의 기대에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은 존재들인데다가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억압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대안마련과 바른 인식과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주위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힘을 가진 매체들의 부정적인 시각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은 사회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스물 두 살이지만 저에게도 어렸을 때가 있었고 성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전 성적도 중상위권에 그다지 튀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저 잠이 좀 많았을 뿐;) 다만 전교에 손꼽히는 커트에 힙합인 몇몇 아이들에 속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정작 핀 아이는 몇 대 맞고 끝나고 저와 제 친구는 누명과 함께 전치 3주가 나오도록 '죽도'로 맞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죠. 왜냐면 전 그때 제가 이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사랑이란 감정 보다는 곁에 두고 싶다는 감정이 더 컸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으니... 나중에 알았는데 그 몇 명 안되는 커트머리가 선생님들 주요 인물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_=;

중 2가 되서 처음 친구를 통해 신화 팬픽을 접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 감정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저 곁에 두고 싶어 그녀에게 접근했고 1년여의 시간과 노력 끝에 그녀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사랑이었다는 것에 너무나 힘들었고 인정할 수 없었죠. 그 뒤로도 전 그녀가 제 곁을 떠날까봐 제 마음을 숨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지면 거의 7년을 그녀만 봤던 것 같네요. 그 사이에 학교에선 많은 일이 있었고 머리를 기르라는 압박에 중 3부터 기르기 시작한 머리가 고입때는 어느새 어깨를 넘어 있더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주위를 보니 많은 이반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도 소문난 '이반'학교가 되어버린지라 선생님들은 거의 포기를 하신 듯 싶은 수준이었죠. 그녀를 잊으려고 팬코스에도 매달려봤고 춤에도, 펌프에도 매달려 봤습니다. 그래도 안되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녀와 그녀의 애인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녀의 애인은 저와 절친한 후배였던 터라 날 위한다고 그녀와 헤어져 버렸고 결국 그녀와는 잠시 어색한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때 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죠. 여기까진 제 첫사랑에 관한, 그리고 이반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까 합니다.

어느날엔가 그녀가 울면서 저희 반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놀림을 받는 그녀에게 전 그러려니 하고 달래주려는데 갑자기 그러더군요.

'여자를 사랑하면 안되는거야?'

전 잠시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이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일반인 척 했던 저에겐 벼락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일 때문에 말이죠... 알고보니 인문계에선 아직도 이반검열과 일명 '정신개조'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참고로 전 실업계 학생이고 건물을 따로 쓰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그때 그녀와 사귀던 후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키스를 하다 걸렸답니다. 선생님께선 '사랑의 학교(징계 받는 곳)'에 데려가시더니 둘을 각각 다른 방에 보내시고는 성경책 한권을 다 쓸 때까지는 절대로 만나지도, 반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타학교 남학생들이 교실까지 들어와도 선생님들 터치 거의 없을 정도로 개방적인 학교입니다. 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미있다고 같이 구경하시면서 농담도 던지시는 그런 분들이구요. 교재 반대하는 학교도 아니고 벌을 내리신다 해도 때리거나 벌점, 혹은 교내봉사로 청소를 시키시는 걸로 아는데 왜 성경? 왜 그걸 시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더 어의가 없더군요.

'너희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린거야. 성경을 읽고 쓰면서 마음을 다스려 악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해.'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그녀 또한, 그리고 저또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예길 듣고나서 그녀는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물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보니 웃기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동성애인들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면 그 누구도 자신 이외의 생물을 비난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보는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신 거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부쩍 칼머리, 피어싱의 규제가 심해졌고 에이즈 검사나 강의가 자주 생겼으며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명단, 주의자 명단에 언제나 올라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런 식의 취급은 받고 싶지 않아서 후배들은 조금씩 삐뚤어져 나갔고 결국엔 학교를 그만 두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고 1때 자퇴한 이는 후배 두명중 하나는 너무 힘들다며 1년뒤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힘들지만 전보다는 행복하다며 다시는 이반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늘 그러고 한명은 학교에선 실패했지만 검정고시로 같은 학년 애들보다 1년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퇴해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는 한 학교란 곳은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힘든 곳이고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죠.

전 이반이 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청소년기의 한때 감정'이라 치부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이반이라 칭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이젠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우린 세상의 쓰레기도, 불필요한 존재도 아닌 그들과 같은 존재니까요.

내가 직접 겪은 피해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거창한 것들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당했던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일, 그리고 많이 아꼈던 동생 이야기를 할 까 합니다.

내 나이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되서 서로 많이 아꼈던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반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인 관계가 넓었던 것도 아닌 그때, 그 동생은 친동생보다 소중했고 맘놓고 울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생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사귀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반친구보다 일반 친구들이 훨씬 많은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면 만나서 한강에 앉아 이런저런 예기도 하며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올라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반검열이라는 이해할 수 없고 어의없는 그 단속에 동생이 걸려버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청소년 탈선선도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불량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당시 제 동생은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성격도, 행동도 빼놓아진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여중생일 뿐이었지만, 애인과 같은 학교였던지라 자주 붙어있고 어울리자 '누구누구는 레즈래더라' 라는 식의 소문이 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같은 학교 친구였던 이반친구의 고자질... 학교에선 부모님을 불러들였고, 엄하시던 동생의 아버지로서 용납할 수 없으셨나 봅니다.

동생은 그 상황에서도 애인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대했고, 선생님들이 써오라는 반성문이며 교내봉사 등에서도 한번도 애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때까지 친했던 일반친구들까지 그 아이를 따돌렸고 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동생의 아버지께선 자퇴시키시곤, 머리를 밀어버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밖에 못돌아다니게 말이죠... 한동안 동생 소식을 듣지 못했던 나는, 이런 얘기들을 동생의 애인에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물면서 어떻게냐고 묻던 그 아이에게 아무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답답하고 저도 언젠가 겪게 될 일 같아서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그렇게 된지 한달..? 동생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의외로 밝은 목소리였고 자진 이제 괜찮다고 보고싶다고 평소처럼 애교섞인 말투였기 때

문에 아무 의심없이 네 애인이 걱정한다고.. 맘잡고 잠잠해지면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또 한달이 지나고, 동생 애인에게 당장 만나자는 버디 쪽지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항상 만나던 여의나루 역으로 갔지만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잔뜩 부은 눈으로 날 기다리던 동생의 애인과 동생이 친구라고 소개시켜줬던 두명의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강 둔치 쪽에 앉은 그 아이들에게 동생의 자살 소식을 전해듣고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며 입원시키겠다고 준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이반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달라지던 친인들의 시선에 밝고 여기기만 했던 그녀석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나봅니다...

장례식에조차 갈 수 없었다면서 왜 저한테 말리지 않았냐고 울면서 소리지르며 때리던 그녀석 애인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고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동생의 친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뒤로 뭐랄까... 아까운게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

어짜피 알려지면 그렇게 될거 뭐하러 눈치 봐야하는 생각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담배도 손대보고 동생과 친하게 지내며 그만뒀던 자해도 다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 애인 소식을 한참 듣지 못했다가 후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니다가, 흔히 말하는 탈반을 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며 많이 망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게 죄가 된다는 걸 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다 연상의 애인을 만나고 술과 담배는 그만 두게 됐었지만, 우울증은 고치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올라왔습니다. 많은 이반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식구들에게 애인이라고 당당히 소개시킬수도 없었고 헤어져서 슬프고 아파도 집에서 마냥 웃어야 했으니까요.

TV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이반이라는 주제로 어의없는 방송을 한 후에는 주변 시선이 더 따가워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손 마주잡고 걸어가도,

컷트머리에 힙합이면 '제네 레즌가봐. 더러워'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주변 일반친구들에게 여자사귀다. 라고 해도 사심없이 저를 받아주었으니까요.

주변 이반친구들에 비하면 꽤나 행운이랄까...

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저에 대해 소문이 안좋게 돌기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복은 바지였고 조끼는 답답해서 안입고 다녔으니까요. 친동생도 남자였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남자같이 자란 탓에 성격도 행동도 그 할일없는 아이들 눈엔 안좋게 비춰졌나 봅니다.

무난히 졸업하나 했지만 작년, 그러니까 고3때 집에서 이반이란 걸 들켜버렸습니다. 친구와 애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며 함께 입맛추던 사진을 가지고 다닌게 화근이 됐습니다. 집안식구들이 발각 뒤집혀 버렸죠.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쉴 새 없이 피셨고, 엄마는 울면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뺨을 많이 맞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니까요. 핸드폰을 뺏기고 사진이며 편지는 갈갈이 찢어졌고 저한테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여자를 사귀냐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뭐가나쁜거냐고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거고 말 안 하면 모를 일이라고 대들었습니다. 여태까지도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때리는 것도 지치셨는지 당장 학교 그만두라고 절 병신 만들어도 밖에 안내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먹여 살리신다면. 동생은 저보고 미친 것 아니냐며 더럽다는 듯, 왜 그러냐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같은 누나는 필요 없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정신차리라며 차라리 남자를 사귀라고 하더군요. 맞아서 퐁퐁 부은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죽어버린 동생 생각도 나고...

네가 이런 기분이였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제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비참해지는 일이였습니다.

지금은 애써 묻으려는 듯 예기를 꺼내지 않으시지만 가끔 동네아주머니들이 엄마에게 왜 전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으시면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며 남자친구들은 많다고 집에 찾아오는 애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남녀공학을 나온 탓에 정말 '친구'는 많았으니까요.

동생은 지금도 저랑 싸울때면 아직도 여자만나면서 그 미친 짓거릴 아직도 하고 다니냐며 묻습니다. 그럴때마다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참기로 하고 삭혔습니다. 가끔 집에 말할까 하는 친구나 동생들이 있으면 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되는 애들이 대다수일테니까요.
가끔 TV에서 동성애에 대해 나올때면 엄마는 그러십니다.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할 거
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미쳤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밝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때와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지, 차
갑고 경멸어린 시선이 아닌 따뜻한 시선 그대로 봐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배척하고 경멸하는 분위기인데 소수는 무시되는 그런 사회에 자
기무덤 파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는 현재 19살의 청소년이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시우

나는 현재 19살의 청소년이다.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다. 학생이란 신분은 이미 나
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학교를 그만둔 것은 2년 전인 2003년 6월 중으로 기억하고 있
다.

나는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안닌, 커밍아웃을 한 기억이 있다. 커밍아웃은 바로 그
작년인 중3 겨울에 했었고, 그 얘기는 바쁜 일상 속에 묻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것이 가장 큰 계기일 것이다. 막,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학
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심한 편두통을 이유로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자 하였다. 워낙 나도 정신이 없고 어안이 병병한 상태였기 때
문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내 의사와는 상관없
이 나는 정신병동에 입원 되 있었다는 것.

이래저래 힘든 병원생활이 끝나고 집에 올 때 나는 10kg가 빠져 있었다. 단 10일말
에 그렇게 빠진 것이다.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감에 밤에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식사
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아
버지는 내가 퇴원한 그날, 내일 학교를 나가라고 말씀 하셨다. 나는 가만히 침묵을 유
지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기분이 나빴던 것도 있지만, 왠지 불안해서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셨고 그렇게 학교를 나가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우리 반에는 나 말고 2명의 동성애자가
더 있었다. 그들은 두 명 다 레즈비언이었는데, 문자 내용은 이랬다. '어떻게 된 거야,
너 학교에 소문 다 났어. 지금 어디야. 소문 난거 알고 학교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했
다.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난감하다. 아니 황당하다.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쉽게 냈을까. 물론 나는 동성애자이고 게이이지만, 만일 그런
소문을 냈음에도 진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 하려고 이런 망발을 쉽
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난 짤막하게 답장을 보냈다. '정신병원입원하다 왔다. 얼마 안
가 자퇴 할 거야' 어차피 학교는 이미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자퇴하려고 마음을 먹던
차였다. 선생님에게는 자퇴서를 낸 상태였고, 까집고 넘어가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
학교는 다닐 마음조차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르듯 모든 사람에게 학교란 존재가 맞아 떨어지진 않는 것이니까 말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반박할 사람이 많을 테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다. '공장폐수를 마시라면 마시겠수?' 라고 말이다. 적어도 나한테 학교는 그런 존재)

아마,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굉장히 노발대발을 하며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젠 화도 안 난다. 저런 사람이란 걸 이미 병원이후부터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 아버지는 내가 학교를 나가지 않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 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모양세로 보였다. 그렇게 생각한 건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누나도 인정한 사실이었고, 정말로 나를 낳은 부모라면, 나를 사랑했다라면 그런 말들은 못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학교에선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퍼진 후였고, 그 얘기 또한 심각하게 와전되어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와 원조교제를 통해서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 내가 다닌 학교는 실업계의 학교였고 내 전공은 실용음악이었다. 실용음악과는 학교에서의 생활 중 전반을 선배들과 붙어 있는데, 그런 학과에서 내 소문 따위는 하루 만에 전교로 다 퍼져 나갔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그 녀석은 참 여성스럽더라, 여자랑 친하더라, 남자랑 손잡고 다닌다더라, 남자랑 키스를 해봤다더라, 남자랑 잤다더라, 남자랑 사귀다더라, 아저씨랑 원조를 한다더라, 아저씨랑 같이 산다더라, 할아버지랑 사귀면서 같이 산다더라...까지의 정말 얼토당토않은 소문의 변천사들이었다.)

하루는 내가 힘을 내서 학교에 갔었던 일이 있었다. 아마 그 소문들로 하여금 학생들은 조금 나를 피하는 기색과 수근 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적어도 학생들은 그나마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선생들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를 철저히 깔아뭉갠다. 별레만도 못한 존재를 보는 듯 한 눈이며,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다. 하루 나갔던 학교에서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았고, 수업시간 도중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이성애자고, 동성애자고 너나할 것 없이 울면서 집을 싸는 나를 붙잡았고 선생은 웃기다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살면서 느낀 감정 중 치욕이란 감정을 깨 닳은 게 아마 그날이었다.

집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울었다. 소리도 나지 않게 울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생각도 없이 손목을 그어 버렸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 버리겠다는 생각과, 죽고 싶지 않다란 생각에 주춤 했던 건지 상처는 심하지 않았다. 물론

피는 굉장히 심하게 나긴 했다. 총 14번이나 비슷한 곳을 그었으니 말이다. 지금에 와선 그 상처들 중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새벽 누나는 내 상처를 보며 울면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었다.

그일 이후 이틀이 지난 날 나는 다시 학교에 갔다. 여름이기 때문에 하복을 입었고, 내 손목의 상처는 심할 정도로 드러나 있었다. 일단은 왼손을 쓰는 것 자체가 아팠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집어넣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책상위에 올려놓고나 걸어 다닐 때 덜렁 덜렁 하는 정도였다. 그걸 본 학생들은 충격의 도가니였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한 정막감을 내가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걸 본 선생님들 또한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지 '하마터면 내가 사람을 죽일 뻔 했다.' 란 생각이 얼굴에 써져 있었다.

아까도 썼듯이 지금에 와선 상처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내 손목의 상처... 나는 가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에, 좌절감에, 슬픔에, 분노에, 상실감에 손목을 긋고 자살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서울에, 한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라는 신분 아닌 쇠고랑을 찬 동성애자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남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학교란 16년간의 교육기간 중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앗아가는지 말이다.

나는 올해 19살 되는 청소년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들중 3번째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나는 집에는 커밍아웃을 하였고, 학교에는 아웃팅을 당했으며, 이미 나의 중학교 동창들 중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하며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도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인권을 가진 개체이며, 생명체이며, 인격체이다

2. 청소년 성소수자와 상담

하경희 _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청소년의 개념¹⁾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농경 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고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의 등장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를 고유한 발달시기로 인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는 교육받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의 의무화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의 개념은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기는 짧을 수도, 길수도 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기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문화나 사회에서는 아동이 그 사회의 고유한 통과의례를 거치면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몇몇 원시문화에서의 사냥의식이나 할례의식, 과거 우리나라의 성인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인한 재학기간의 연장, 직업훈련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먼저 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기준으로는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 연령에 따른 구분 등

이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월경, 사정의 시작)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개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징후들이나 사춘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사람에 따라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더욱 분명치 않은데 이는 사춘기 때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시작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은 신체적인 징후로 판단되기보다는 그 사회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령에 의한 구분이다. 1985년 UN에서 공식으로 규정한 청소년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UN기구 중의 국제식량기구(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부문'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UN사무국이 UN 회원국 및 비정부단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는 하한 연령을 7세부터 잡는 나라도 있고, 상한 연령도 30세, 35세까지 다양각색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이며,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란 개념은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의 신체·생리·심리·정서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동과는 확연한 발달 특성상의 차이를 보이는 시기인 12-13세 부터,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사회적 역할로 인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는 대학생 전의 연령까지로 한정한다.

2.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의존적인 아동기와 독립적인 성인기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공유하여 아동도 성인도 아닌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주변인으로서의 특질을 갖는 시기라는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 다른 어떤 발달단계보다도 중요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은 건전하고 밝은 심성으로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과 잘못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기, 부적응 시기, 제 2의 반항기, 고민·고통의 시기, 초조 불안의 갈등 시기,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시기라고 불린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기

1) 홍봉선·남미애(2004),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에서 발췌함.

술이 고도화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직업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준비기로서의 청소년기가 길어지게 된다. 청소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역할 구조에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갖는 소외감, 사회·심리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받음으로써 갖는 좌절감, 불만 등을 낳는 결과를 빚어낸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개인별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이 시기 동안 겪는 청소년의 욕구와 갈등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을 신체·생리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대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심리적 특성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생리적 변화로는 호르몬의 변화, 신장과 체중의 증가, 성적 측면에서 2차 성징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생리적 변화들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또한 자신의 신체변화와 친구들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발달이 정상적인지 아니지를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체적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청소년의 성격이나 가아존중감,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으로는 성적욕구의 발달은 죄의식과 충동조절의 문제를 초래한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2) 인지적 특성

청소년기에는 눈앞의 현실세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이나 가능성의 세계, 추상적인 것에 대한 사고가 발달하게 되고 조합적 사고가 발달하여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이러한 인지 발달은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아정체감이 형성, 발전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자아정체감은 전 생애에서 인간이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인 동시에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연속되고 일관된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가 조화감을 이루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실존의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을 형성을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가치를 명료화하게 한다.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발달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체감 형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지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로부터 도피하거나 때로는 반발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둘째, 자기중심적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가상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라는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가상청중이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장된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우화란 청소년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아무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셋째, 도덕성의 발달이다.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그들의 인지적 성숙과 사회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의 최고 과업인 자아정체감의 혼미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던 단계에서 사회적 구속을 벗어나기 위하여 규범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도덕적 퇴행이 나타난다. 또한 도덕적 상대주의와의 대인지향적 도덕성의 발달로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지려는 이타적인 부분이 크게 발달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을 그대로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된다.

(3)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다한 과업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쉽게 우울하며 낙담에 빠지고 화를 잘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마음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종종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과장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일에 쉽게 흥분하며 현실감을 잃고 곧잘 열중해서 그 일에 빠지며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다.

(4)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시기로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등 또래집단에 몰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로부터 개별화하고자 한다. 개별화란 청소년이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지속하면서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경험해 가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들로 바뀌며 부모와는 상이한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개별화 노력은 성인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런 성장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으로 인식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둘째, 동서이나 이성친구 등 또래집단에 몰입한다. 청소년 이전 시기부터 또래관계는 유지되어 오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 는 그 이전과는 구별되게 서로 간에 심리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깊어지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비슷한 발달단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얻게 한다. 이 시기에 또래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의 확립은 물론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또는 고립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3. 청소년 상담의 특성 ·

① 청소년과 상담자의 힘의 차이 혹은 세대차이

상담자는 이미 나이, 의사결정, 자원 등에서 청소년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는 둘 사 이에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차이는 은연중에 작용을 해서 청소년을 '아직 철이 덜 든' '미성숙한' 존재로 보게 만들거나 혹은 상담자의 시각과 의견을 강제하기 쉽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힘의 차이 혹은 세대 차이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하며 청소년의 삶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청소년이 가진 강점, 가능성을 신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를 이해하는 것,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는 것, 어른으로서의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가가 흔히 취하기 쉬운 자세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는 보호자적 태도이다. 상담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스스로의 몫이다. 상담가가 청소년의 문제를 선불리 결정 내려주거나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쉬우며 설사 그것이 결론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의 과정에 있어서 주체는 청소년 내담자 스스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내담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정의 관점이 아닌 발달 혹은 성장의 관점으로

청소년이 가진 혹은 보여 지는 문제 혹은 어려움은 이미 그 자체로 고착되어 있어 교정해야 할 대상 이라기보다는 아직 성장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리적 혹은 문제 중심적 시각보다는 잠재성, 가능성, 강점 중심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떠한 문제행동이 보여 질 때 그 행동 자체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충분한 자기 탐색, 통제력 및 적응기술의 습득, 동기화 등이 중요하다.

③ 비자발적 상담의뢰 과정과 부족한 상담동기

청소년 내담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상담의 필요를 느끼고 찾아오기 보다는 부모나 상담자, 교사의 권유에 의해 상담 장면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특성이 강한 청소년은 상담동기가 약하고 상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으며, 처음부터 거부적이거나 중도탈락의 위험이 크다. 청소년 상담은 상담초기에 청소년 내담자로부터 신뢰감 확보가 크게 요구된다.

또한 의뢰인과 청소년 사이에는 상담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나 행동 및 태도를 의뢰인은 문제로 보는 것을 청소년 자신은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개념차이를 줄여주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주변 및 소속집단의 영향

청소년은 철저히 사적 선택권이나 자기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청소년은 의존과 독립의 두 얼굴을 갖고 있어, 부모, 친구, 학교의 영향 등 소속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들 주변인의 협조와 지원은 상담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⑥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 상담구조

청소년은 과거중심·심층심리탐색적 50분 회기의 장기상담방법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역동적이거나 심층심리분석적 상담방법보다는 현실적이거나 문제 해결중심의 상담방법, 자신의 욕구로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상담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당장 자신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담을 수용하기 쉽다.

⑦ 활동중심·놀이중심 개별상담

청소년기는 일생 동안 신체적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청소년은 누구보다도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활동중심의 상담을 통하여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놀이중심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필요한, 중요

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치료적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다.

4. 청소년 성소수자

성인 게이 및 레즈비언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의 동성애 환기(각성, sexual arousal) 내지, 동성애에 입각한 성적 환상 그리고 동성애에 입각한 낭만적 몰입(romantic attachments)은 대체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게이인 경우는 평균 12-14살 때부터, 레즈비언의 경우는 약 14-16살 때부터 동성애를 향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Saghir and Robins, 1973, 함인희, 2003에서 재인용).

성문화 자체에 대하여 금기시하는 유교적 문화와 관습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존재이며 이성애중심주의라는 지배적 성담론은 동성애적 관계나 가족의 존재를 부인하며 나아가 동성애자를 에이즈와 동일시하여 병리적 집단으로 낙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정체성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로 보고 청소년의 동성애를 이성애적 정체성이라는 완전한 발달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무시하며 혹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조차 동성애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이성애라는 올바른 정체성으로 고쳐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쉽게 접하게 되고 과거보다 훨씬 일찍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동성애에 대하여 보다 더 유연적 사고를 가지게도 하는 반면 포르노, 야오이 만화와 같은 현실과 거리가 먼 매체들을 통하여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만의 환상과 이미지를 키워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밖의 실제 현실로 나가게 되면 이성애 중심의 주류적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과 사회의 기대와 편견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즉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아웃팅(outing)을 당할까 봐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신건강 그리고 학교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직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가 심각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30% 정도가 동성애 때문이라는 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Mallon, 1998).

1) 청소년 성소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이슈

① 소외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상담 서비스를 찾아오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족, 또래 친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소외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이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정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고 적절한 역할모델이 부재하며 가정 및 사회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rysiak, 1987).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발달적 과업이나 혹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때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 즉 가족, 친구, 사회적 서비스, 다양한 정보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들이 직면하게 되는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자신의 고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도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원 또한 부재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감을 경험하고 혼돈, 죄책감, 비밀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감 혼란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때로는 이러한 혼란을 음성적인 성인문화에 쉽게 유입되어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② 가족 문제

상담을 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가족문제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서부터 폭력과 쫓겨나는 것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커밍아웃과정에서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과정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숙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커밍아웃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우연히 알게 되어 아웃팅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거부, 폭력 등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거나 부모가 청소년의 성적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쫓아내는 경우에는 노숙, 물질 남용, 자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다.

③ 사회적 태도와 반동성애 폭력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감이나 혐오감은 극단적인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같은 증오범죄(hate crime)로 나타나게 된다(Fairchild, 1992).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 동성애자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는 서구사회에서도 아직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혐오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심하게는 그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윤가현, 2001; Marcus, 2001). 미국 역시 게이들에 대한 폭력범죄가 1988년 700여 건에서 1992년 1,900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며(Singer & Deschamps, 1994) 성인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Cosmock, 1991).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폭력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나서 청소년 남성 동성애자의 절반이상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언어적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30%가량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Remafedi, 1987). 이러한 폭력의 경험은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Garnets, Herek & Levy(1990)의 연구에 의하면 반 동성애 폭력의 희생자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며 심각한 자기회피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언어학대에 의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 자나 신체적 공격을 받은 자나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있다.

④ 심리·행동적 문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수집단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 드러내기, 사회적 낙인과 차별, 폭력 등의 경험을 하면서 이성애자와 비교하여 보다 더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동성애자로서의 정체감을 동시에 형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고립감,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대인관계어려움, 외상후 장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가출, 자살과 같은 심리행동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위험성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미국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시도가 2배에서 3배정도 높고 전체 청소년 자살율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 이후의 많은 연구결과들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48%에서 76%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며 29%에서 42%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ussell et al, 2001).

2) 한국에서의 청소년 동성애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며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연구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을 조사한 장재홍 외(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학급에 뚜렷한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평균 100명 중 약 2.7명(남자 1.8명/여자 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청소년도 응답자의 11.0%(남자 6.5%, 여자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성과의 키스, 포옹, 동성교제와 같은 애정표현의 경험이 실제로 있는 청소년도 7.9%(남자 4.1%, 여자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 동성애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한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징그럽다', '정신병이다', '변태다'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으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와는 다르나 그럴 수 있다'가 각각 9.3%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강병철·하경희, 2005)를 통하여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성이 16명, 여성이 44명으로 고등학생이 70% 가까이 차지했으며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 가톨릭이었으며 부모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가장 많았고 이혼과 별거도 14명 되었다. 한편 자퇴 및 가출의 경험이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나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동성애적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조사대상자가 고등학생이 많아서인지 중학교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지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이 주변의 동성친구나 선후배 혹은 선생님을 좋아하면서라고 응답하여서 이들이 단지 매체나 문화적 유행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실제적인 동성애적 감정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신의 정체체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절반 이상이 편안하게 느끼며 또 지극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체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이는 표집에서 오는 편향일수도 있으며 이전보다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나 문화적 관심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의 청소년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커밍아웃의 정도를 보면 동성애자 친구에게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우는 가장 낮았다. 커밍아웃 후 수용정도나 정체성과 관련한 의논상대로는 동성애자 친구나 이성애자 친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부모의 경우 수용정도도 가장 부정적이며 의논상대로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체성에 대하여 가족에게 거의 드러내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우가 40%정도나 되었으며 아웃팅 당한 후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서 이들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의 접근경로는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서였고 동성애자 친구 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400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80%이상이었고 이들 중 절반이상이 정기적으로 혹은 가끔씩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접근경로 자체가 동성애자 모임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반(反)동성애 폭력경험을 보면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30% 가까이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이나 개인 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신체적 구타나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매우 심각한 폭력의 경우도 10%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의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자살 위험성을 살펴보면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경우가 63%이었고 매우 자주 생각하는 경우도 25%이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우도 47.2%까지로 높게 나타나서 서구에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체성 관련 특성들과 자살 위험성과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성 정체성 관련 특성들 중 자살 위험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커밍아웃시 주변의 수용정도,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아웃팅 여부, 동성애자 친구 수였다. 즉 커밍아웃시 수용정도가 부정적일수록, 반동성애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동성애자 친구수가 적을수록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애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폭력의 경험이 이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되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 성적소수자의 상담

1) 성 정체성 발달 단계와 상담개입 (Janet & Nancy, 1996)

발달단계	감정 및 행동 특성	상담 개입
혼란	"다름" 을 느낌 동성애에 대한 매력, 꿈, 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를 제공함 ▶ 정보를 제공함 ▶ "다름" 안에서 감정 탐색 ▶ 성급하게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도움
비교	또래집단과 다름을 지속적으로 느낌 동성애에 대한 매력, 집착이 더욱 강해짐 사회적 고립, 소외, 수치에 대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것과 함께 ▶ 두려움, 불안, 수치심에 대한 탐색 ▶ 긍정적인 역할 모델 확인 ▶ 연령에 적절한 또래지지 자원 연결
감내	동(양)성애자 친구나 성인을 적극적으로 찾음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기며 "이중적생활" 을 살 성적 관심을 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것과 함께 ▶ 안전하고 지지적인 성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킴 ▶ 성인과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자제시킴 ▶ 동(양)성애자 친구와의 사회적 활동을 격려함 ▶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어 줌
수용	동(양)성애자 친구와의 접촉이 증가 또래친구가 없을 경우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낌 가정이나 학교에서 희생양이 되기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것과 함께 ▶ 성 경험이 있다면 "안전한 성" 을 권장 ▶ 커밍아웃에 대한 이슈를 탐색 ▶ 기본적인 자기가치를 확산시킴 ▶ 자아 존중감을 탐색하고 형성함
자긍심	이성애자들에 대하여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분리된 태도를 가짐 동(양)성애적 생활 양식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적극성을 보임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것과 함께 ▶ 자기 수용과 자긍심을 지지함 ▶ 지지적인 이성애자들과의 관계 격려 ▶ "완전한 노출" 에 대한 주의
통합	지지적인 이성애자들과의 다시 어울림 자신의 정체감 및 타인의 시각에 대해서도 공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됨 정체감 이외의 일, 학교,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정체성과 자아의 다른 정체성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함

2) 상담전략

① 편견 갖지 않고 들어주기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민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겪어야 되는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상담자와의 만남은 이러한 고립된 상황에서 고민을 나누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담자 스스로의 태도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상담자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어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인식과 태도는 상담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오히려 또 하나의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한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항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어렵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때 편견을 갖지 않고 열려진 자세로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② 탐색 허용하기

성정체성은 단지 몇 번의 성적 행동이나 관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삶의 전체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지며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상담가는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에게 백일몽, 정서적 패턴, 표현되지 않은 신체적 끌림, 정서적 반응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적 지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선불리 자신의 성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동성에게 집착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의식적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부정하고 다른 활동들에 집착하는 것 모두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정체성의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가는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 행동이 비교적 보편적인 것임을 인식시키고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보다 시간을 두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③ 정보제공

성 정체성 형성의 초기 혼란과정에서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다. 성정체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보들이나 왜곡된 편견들은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상담자는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을 보다 폭넓게 고민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상담자와의 대화 뿐 아니라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④ 커밍아웃 다루기

청소년들이 커밍아웃을 시도하는 경우는 스스로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정체감 문제를 주변에 먼저 알림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자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받고 싶은 시도로 커밍아웃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심한 경우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커밍아웃을 시도하고자 할 때 상담가는 발생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결정이 된다. 따라서 상담가는 청소년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고자 할 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커밍아웃의 이유들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대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부모님의 도덕적 관점이 어떠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커밍아웃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가족내 분위기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이해하고 인정하기 까지 부모님 스스로도 "커밍아웃"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기다리기까지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3.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 발달과 사회 심리적 고통

여기동 _ 정신과 간호사, 前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1. 청소년 성장발달과업: 자아정체성(ego-identity) 획득

자아정체성(ego-identity)은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으로 청소년동성애자에게는 특히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성애자 청소년들과 같은 여러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고 가장 힘든 부분인 성적체성의 성취는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청소년은 이 시기에 자아정체성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정체성의 상실이나 유예에 빠질 수 있으며 심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탐구나 결정 없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가장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아정체성은 '동성애자로서의 나'로 자신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간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이 갖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사회적으로는 인정 받지 못해서 정체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불일치 때문에 '나는 나'라는 실존의미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있어서 이런 중요한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천박한 이성애우월주의와 동성애혐오증에서 기인한다. 이런 야만적 두 가지 요인은 동성애자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올바른 동성애교육과 정보제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이 마음껏 드러내고 즐길 수 있는 동성애 문화와 여가를 빼앗으며 다른 청소년 동성애자들과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것을 막고 있어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있으며 차별과 억압에 짓눌려 있다.

2. 동성애 성적체성 발달과정 및 사회심리적 고통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혼란기 → 인식기 → 저항기 → 수용기 → 자긍심기 단계로 총 5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단계별 특징적인 개념과 정신건강 문제가 다음과 같다. 혼란기에는 동성에게 정서적, 애정적, 성적 매력으로 이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식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동성애자인지 동성과 사귀어 확인하고, 고립감, 두려움, 괴로움을 느끼고 심할 경우 자살까지 시도한다.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임 인식한 후에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한다. 저항기에는 자신의 성적체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자기 부정을 시도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이성 친구에게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여성과 성관계가 가능한지 성적 테스트와 정신적 치료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로 인해 정체성 인정이 상당히 지연된. 이 시기에 아웃팅,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신체화 증상, 우울, 자살, 역겨움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수용기에 와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결과 여러 측면이 긍정적으로 전환된다. 그 예가 자조 그룹을 만나고, 동성을 사귀었고 정서적으로는 죄책감, 수치심, 역겨움, 답답함이 감소된다. 마지막으로 자긍심기에는 자긍심을 갖게 되어 당당하게 드러내는 커밍아웃과 적극적 사고를 하게 되어, 죄책감이 없어지고 성격이 활발해지면서 즐거운 생활을 한다. 또한 동성애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동성애 인권 운동에 참여한다.

동성애자의 사회심리적 고통 고위험기 → 안정기 → 건강증진기 3단계로 변화한다. 고위험기에 죄책감, 두려움, 우울, 자살, 자아부정, 자아혐오, 신체화증상, 고립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고통, 화, 괴로움을 겪는다. 안정기에는 죄책감, 수치심, 역겨움, 답답함, 가족부담감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안정을 되찾는다. 건강증진기에는 자긍심, 자신감, 편안함, 성격이 밝아졌고 타인 이해, 인간관계가 높아지며 즐거운 생활을 한다.

3. 청소년 동성애자를 위한 제언: 우리 자신이 변화하자 그리고 돕자

동성애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정신병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성적체성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이성애우월주의와 동성애혐오증으로 기득차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면서 이성애자로 바뀔 것을 꿈(?)꾸며 강요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경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비이성적 행동이야 말로 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폭력이다.

청소년 동성애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 고립되어 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계관과 행동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때이다. 이들의 다양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폭력적 억압과 소외로부터 방어해주고, 다양한 차원의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변화되고 도와 우리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해맑은 미소가 짓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보자.

4.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²⁾

홍의표 _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1. 들어가며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이라는 이야기에 앞서 ‘교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이야기의 주체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음을 상기하며,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예전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활동가로서, 그리고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만나온 지난 몇 년간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필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999년 친구사이에서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시작할 때만해도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필자의 이해란 그저 이미 성인이 된 필자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채 막연한 첫사랑의 열병을 앓던 청소년기, 그냥 한때의 스쳐 가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누었던 동성 친구들과의 성적 경험들, 이런 혼란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정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학에 들어가고 한참을 지나서야 시작되었다. 하지만 80년대에 청소년기를 거친 필자의 경험과 2005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 동성애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이 글은 2004년 7월에 열린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상담교육 워크숍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1994년 한국에서 본격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싹이 틔운 후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아니 사실 그 변화는 필자의 경험으로서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필자가 친구사이의 회원으로 소식지를 돌리기 위해 종로에 있던 게이바를 돌던 1994년의 분위기만 해도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소식지 한 통치를 들고 어딘지도 모를 어두컴컴한 골목과 계단을 지나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서서야 겨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동성애자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거리 행진을 벌이며 영화제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학 강연을 다니는 동성애자들이 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수의 대중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아무런 수단을 가지지 못했던 성적 소수자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통의 공간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당시 각 통신사(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마다 동성애자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또한 그때까지 상대적으로 정보취득에 있어 약자의 입장에 있던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생기면서 각 동호회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활동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보다 대중적으로 보급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독자적인 청소년 동성애자 모임이 급격히 팽창되고 확산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회원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 모임들이 무수히 생겨났다(Aqua, Any79, 로미오&로미오 등).

그때까지도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모임에서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과연 청소년 동성애자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당시 청소년 모임들이 많이 생겼던 요인 중의 하나는 기존 커뮤니티에서 조차 배척당하는 소수자 내의 소수자가 바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동성애자는 소수자 내의 소수자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1년 'EXZONE 사건'이라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서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고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 혹은 청소년과 동성애자의 문제는 전체 동성애자 인권운동과 따로 갈 수 없는 하나의 길임을 알게 되었다.

2. 기존의 연구물과 비교해 본 청소년과 동성애

성인 게이 및 레즈비언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의 동성애 환기(각성, sexual arousal) 내지, 동성애에 입각한 성적 환상 그리고 동성애에 입각한 낭만적 몰입(romantic

attachments)은 대체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게이의 경우는 평균 12-14살 때부터, 레즈비언의 경우는 약 14-16살 때부터 동성을 향한 성적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다(Saghir and Robins, 1973). 더불어 최초의 동성애 환상을 경험한 시기는 남자 11.2세, 여자 11.9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Boxer 외, 1989).

1999년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동성애자 모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 자각하게 된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시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 연구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설문 조사 결과에 비해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의 성향을 자각하게 된 시기는 대략 언제입니까?

자각 시기	중학교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
응답자수(백분율)	5명(10%)	32명(64%)	11명(22%)	1명(2%)

(1999년, 제2회 청소년동성애자인권학교 설문조사 중)

동성간에 육체적 접촉을 하는 시기는 게이 청소년의 80% 이상이 15살 때로 나타난 반면, 레즈비언은 같은 시기에 그 비율이 약 24%로 나타나고 있어 게이의 경우 자신의 성적 호기심 내지 각성이 이루어진 직후 이를 행동에 옮기나, 레즈비언의 경우는 4-5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행동에 들어가는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신 레즈비언의 경우는 19살이 되면 육체적 성관계의 비율이 53%로 배가한다. 결국 게이 청소년은 사춘기 초기 및 중기에 동성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육체적 동성애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Bell 외, 1981).

앞서 설문에서 청소년 응답자 중 동성과 성적 경험이 있는 경우는 게이 청소년이 거의 80%인 반면에 레즈비언 청소년의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최초의 시기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남자는 14세~15세 사이가 응답자의 79% 정도였고, 여자는 소수의 응답자 중 15세~18세에 걸쳐 고르게 응답하였다.

과거 동성애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게이는 10대 후반, 레즈비언은 20대 초반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공영역, 대중매체에 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Offer and

Boxer, 1991).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다르다”(something different)는 느낌을 경험하지만 이 느낌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규정으로 곧장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는 1/2 정도가 18살에, 대다수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 범주화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 게이 경우는 사춘기 초기 동성애적 느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규정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앞서의 설문조사에서 동성애자 청소년들 중 남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70% 정도(불확실 포함 87.5%)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한 반면 여자의 경우 54%(불확실 포함 80%)정도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남자들은 70%가 동성애자라고 응답했으며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16%인 반면, 여자의 경우 동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배정도 많았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 시기의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육체적 경험에 있어서도 보다 빠르고 경험의 비율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정조관념을 강요하는 가부장적(혹은 남성권력적)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보다 자유로운 성적 행동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경험, 느낌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동시에 이 시기는 성적 환상 및 경험, 낭만적 몰입 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시기이기에, 이성애자인 동료들이 이성 친구에 관심을 보일 때 자신은 그들에게 “무관심”함을 느끼면서 자각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처음으로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은 대부분이 “강력한 불안감”(intense anxiety)을 수반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해마지 않던 집단에 자신이 속함을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으로서, 이로부터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춘기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고민은 자신의 sexualit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 더불어 긍정적 역할 모델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는 학교라는 맥락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바, 교사 중에 동성애자가 있더라도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동성애자들을 돕고 싶어도 자신이 동성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기에, 이들의 고민은 안으로 침잠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해온 낙인을 극복하고 나아가 동성애 공포를 다스리는 일은 사춘기 동성애자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앞서의 설문에서 동성애자 청소년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남성 25%, 여성 38%). 또한 자신의 성향과 관련된 고민 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29%)이 장래에 대한 불안(32%)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동성애자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하는 고민이지만 막상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관련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기껏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은 학교나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중 듣는 ‘AIDS는 동성애자들의 병이다(혹은 동성애자가 AIDS확산의 주범이다)’,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며 치료해야 할 대상이다’, ‘동성애는 범죄이며 변태적인 성적 도착이다’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반응은 동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는데 모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발달 유예(developmental moratorium)가 진행된다. 그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동성을 향한 이상한 느낌이 곧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덧붙여 이들에겐 모든 동성애자들은 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정보가 만연되어 있기에, 자기 치유를 시도하기도 한다. 곧 일례로 게이 소년은 보디빌딩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며, 레즈비언 소녀는 여성다운 옷에 짙은 화장을 즐겨 하고 이성과의 데이트 및 성행위에 몰입하거나 임신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 단계는 특별히 사춘기 동성애자들에게 극도로 외로운 시기이다. 아직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춘기 초기는 발달 단계상 자기 중심성(ego-centrism)이 강한 시기로서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이 시기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쩌나 혹은 반(反)동성애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이 고립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매우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순간은 동성애적 편견과 비하에 접하는 일인데, 이들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신과 똑같은 동성애자들을 겉으로 조롱하고 폄하하곤 한다. 한편 이들의 “다름”이 동료들에게 드러날 경우, 이들은 별명 불리기, 농담 및 조롱의 대상이 됨은 물론 강한 형태의 사회적 배척(ostracism) 기제인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이들은 항상 자신의 동성애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경험하는데, 학교 환경은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의 설문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은 경우는 전체의 22% 정도였다. 그 내용으로는 '여자(혹은 남자)같다는 놀림', '변태 혹은 호모라는 비난, 따돌림', '성교육(혹은 수업)시간 등에 겪는 동성애 비하(AIDS관련 교육 등)', '동성과의 사귀에 대한 비난,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 자살이나 가출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우가 전체의 21%에 달하였다.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성향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고립감이었으며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 부족(소속감의 부재)' 또한 주된 고민 중 하나였다. 장래에 대한 불안 중 가장 큰 요인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44%)'로 결혼(26%)이나 직업(24%)에 대한 고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의 34.7%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징그럽다(29.6%)', '정신병이다(22.6%)', '변태다(21.0%)', '나와는 다르나 그럴 수 있다(19.3%)', '아무 느낌이 없다(10.3%)',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9.3%)', '죄악이다(8.2%)', '호기심이 간다(4.0%)', '관심이 많다(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로 가장 높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징그럽다'가 13.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나와는 다르나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각각 12.1%, 6.7%로 남학생(7.3%, 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가까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말린다'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한다'(23.0%), '별로 관심두지 않는다'(16.8%), '피한다'(10.6%), '인정해준다'(9.3%), '격려해준다'(6.4%), '따돌린다'(1.8%), '나도 관심을 갖는다'(1.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부적인 행동(말린다, 피한다 등)이 79%로 수용적 행동(인정해준다, 격려해준다 등) (16.8%)보다 높았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인정해준다', '격려해준다'가 각각 14.0%, 8.9%로 남학생의 5.2%, 4.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동성애 성향이 있는 친구에게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6월 중순경 중학교 2, 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성적소수자 이해교육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나눠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반응이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마인드를 가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소수자를 이해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정도가 훨씬 나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다.

3.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몇 가지 왜곡된 시각

청소년 시기에 단정하지 말자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좋지 않다.(실제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동성과의 성적 경험을 가지지만, 단지 소수만이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급하게 앞에서 언급한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을 풀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나 가족 내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2001년 제4회 청소년동성애자 인권학교
동성애 정체성 강의 자료 중에서'

일단 성별정체성이 확립된 후에는 이를 변화시키려 하여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Money 등, 1995).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별정체성의 장애가 교정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고, 성전환증자가 타인과 성적 행위를 갖는다면, 동성애로 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예방책도 그리 쉽지 않다……그렇지만, 동성애자로 진전되면 치료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설사 치료를 원한다 하여도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청소년기와 그 이전에 두드러지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고 병인적 가족적 배경(남자 동성애자(gay)에서 지배적이고 소유적이고 유혹적인 어머니와 약하고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고 결손된 아버지, 여자 동성애자(lesbian)에서 적대적이고 지배적이고 반성적(anti-sexual)인 어머니와 주장 못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손해 볼 것은 없다……동성애는 치료가 힘든 것뿐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 성적은 확정적이지 못하다. 가장 치료적 가능성이 높은 전제조건들은 연령이 젊고(청년기),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최근 발생이고, 이전에 이성애적 성경험과 성반응이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 35세 이하의 동기가

높은 남자 동성애자에서 치료로 25~50%는 만족스러운 이성애적 기능을 했던 경우이다. 치료법으로서 아직까지 특수형의 치료법은 없고, 개인 혹은 집단형식의 정신분석적 치료법이나 각종 기법들을 이용한 행동요법들이 대표적이고, 약물요법이나 홀몬요법은 효과가 없다. 행동요법은 혐오기법, 강화기법, 탈감각기법, 노출기법, 감각기법으로서 소실기법 등을 사용한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여도 동성애의 발생률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중
신경정신과 의사의 발제문 중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데 학교 화장실에서 키스하는 경우,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 슬그머니 외면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은 뒤에서 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놓고 욕하지는 않는다. 남학생들은 드러내놓고 만행(일종의 커밍아웃으로 돌이 커플임을 알림)을 하지 않지만 여학생들은 공공연하게 하기도 한다.....그래서 학교에서 만이라도 성적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중
교사의 발제문 중에서

4. 교사들의 눈으로 본 청소년 동성애

2002년 제5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준비하며 성적소수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 있다. 앞의 5문항은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관련된 객관식의 문항이었고, 뒤의 3문항은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문항이었다. 다음은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이다.

* 다음 질문에 대해 ○, ×로 대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	×	기타	합계
1. 동성애는 AIDS의 원인이다	18 (53%)	14 (41%)	2 (6%)	34 (100%)
2.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6 (18%)	27 (79%)	1 (3%)	34 (100%)
3. 동성애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12 (35%)	21 (62%)	1 (3%)	34 (100%)
4. 동성애는 우리 나라의 전통과 상관없이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다	1 (3%)	32 (94%)	1 (3%)	34 (100%)
5. 청소년기의 동성애는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4 (12%)	29 (85%)	1 (3%)	34 (100%)

* 동성애(혹은 동성애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있는 대로 적어주세요)

☞ 응답내용 : 힘겨운 삶, 몇몇하지 못함, 반윤리적 / 금기, 불안, 불쌍함, 언더, 밤, 나이트클럽, 수술 / 게이, 호모, 에이즈, "아직은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수긍하고 인정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 "역겹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홍석천 / 소수, 이상, 편견 /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남아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 사회적 약자 / 느끼함, "나와 관련 없음" /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성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성끼리 우정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성생활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 교도소, 감옥, 게이바, 수용소 / 미소년, 유약함 / 징그럽다 / 소외, 개성 /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나와 다른 사람, 안쓰럽다 / 슬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소수자,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 / 고통, 소외, 투쟁, 선진국(네덜란드) / "장국영(패왕별희)이 떠오른다" /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이상하다, 지저분하다 / "낮설고 사회적 현상의 피해자로 보임" / 연약함, 소수, 고립 / 소수집단, 소외된 사람들 / 핍박받은 사람들, 아웃사이드 / 소외, 반사회 / 퇴폐적, 안쓰러움 / 소외, 경제력 없음, 불건전한 직업, 가족과의 불화 /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 "징그럽다, 성장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동성애자에게는 동성애가 반드시 필요한가?(절박한 상태인가?)" / "그럴수도..." / 홍석천, 하리수, "그렇게 태어났는데 본인은 어찌겠는가, 어쩔 수 없는 일, 인력으로 안되는 일, 약간 안됐다는 느낌도 있다 / 특이하다, 정말? 당황스럽다(나랑 다르니까....) 힘들겠다. 이해해 줘야 해... / 조금은 뭔가 다른 사람들 같다 / 조금 사랑이 부족한 자

*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 응답내용 : "과거를 죽 들어보고 싶다" / "학생 스스로 고민스러운 내용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많이 들어준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자를 소개해 준다" / "냉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조언한다. 동성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특히 청소년기에는 성적체성을 찾아나가는 단계이면서도 동성에게 호감·매력을 찾는 심리가 강하므로..." / "진지한 태도로 엄숙해질 것이고 할 말을 찾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 지도 방법을 못 찾고.. 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설명해 주고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게 한다" / "자제할 수 없는 범주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죄책감 등에 대한 마음적 부담을 덜어 주고, 노력해 볼 것을 권하고 극복 관련 책을 권해준다. 그러나, 자신은 없다(비경험자로서)" / "학생의 고민과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상담한다" / "이성애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 / "일시적인 것이다, 건전한 이성 만남을 권장" / "전문 상담 기관에 소개" / "이야기를 들어준다" / "책읽기,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영화보고 감상문 쓰기" /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겠고,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 먼저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 필요 / "전문적인 상담 기관을 연계시켜 준다" / "성적체감을 갖도록 지도한다, 동성에게 쏟는 '사랑'의 감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게 한다" / "판단을 유예하는 쪽으로" /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 "전문가를 찾을 수 있다면 전문가와 연결해 준다.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감추라고 권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 "어떤 문제에 처해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의 고정화된 틀을 어느 정도는 따르도록 하자" /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겠다" /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 / "난 이 분야에 대해선 말할 자격이 없다. 고민을 하고 연수를 받아본 적 없으니까. 인간적인 대화 수준에서 그치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겠다" /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나는 잘 모르므로 전문가에게(상담센터)의뢰" / "전문가에게 의뢰" / "상담자의 입장이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솔직한 심정을 진지하게 듣는 것으로, 특별한 지도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 / 전문기관에 알선 / 성적 정체감을 갖도록 지도 / "일단은 긍정적 자세를 취하고 본인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지만... 교육적 측면과 나 개인 스스로의 취향 때문으로 그 아이를 다 이해할 수 있을지가..." / "글쎄... 나한테 상담하러 안 올 것이지만... 전문가의 상담 다리를 놓아준다" / "왜 동성애를 느끼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과정의 문제를 깨닫도록 지도. 정상적인 이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 학교에서의 성교육 중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급되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 응답내용 : "정신적 심리적 장애의 일단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야 한다" / "언급되어야 함, 동성애의 시각, 동성애의 의미 등(사실적인 측면)" / "다양한 인간의 기호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라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문제이다" / "언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더욱 더 성적소수자들에 대해 편견만 키웠다.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 "성교육 내용 중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 / "당장은 어렵다. 사회적 인식, 합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후에 가능" / "꼭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조하려 하지 마라" /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중 동성애를 내용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것들이 수없이 존재하며, '나쁜 것'이라 말하기 전, 그들(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반드시 필요해요" / "언급되어야 함.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개인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아담과 이브가 만났듯이,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종족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엄연한 현실이므로 성교육 시간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언급되어야 한다. 동성애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들"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동성애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 "상황, 판정 확신 방법" / "시기 상조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시각을 교육면에서 다루는 정도" /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준" / "사회현상에서 오는 동성애 현상과 그 원인으로부터 이야기해야 하고 후천적 동성애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임" /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 "그들도 인간이다. 포용해야 한다.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정도로 언급" / "성적 주체성과 동성애의 이해" /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비관적 시각 강조), 건강 위생상의 문제" /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니다" / "진정한 사랑의 의미" / "O.K.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내용-원인, 대책, 치료문제" / "언급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이해할 수 있도록!" / "언급하지 않는다" / "그렇다. 사례위주"

5. 이성애자 청소년들의 눈으로 본 동성애

* 내가 보는 동성애는 (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징그럽다, 정신세계가 문제다, 슬픈 추억이 있다, 이상하다, 변태 같다, 보기 안 좋다,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안 된다, 보기 민망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 같다, 이해가 좀 안 된다, 싫다,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괜찮다, 이해된다, 나와 이성교재에 대한 생각의 방식이 다르다, 낯설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모두 후천적 요인이 강할 텐데 동성애를 한다고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해 간다, 이해는 하지만 나쁜 것 같다

* 내가 보기에 동성애자들은 (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불쌍하다, 타인의 일이나 도움을 주지 않을 망정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서로서로 만족한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겉모습은 별다른 게 없다, 신경 안 쓴다,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된다, 어느 정도 괜찮다, 아름답다, 징그럽다, 변태 같다, 이해가 좀 안 된다, 보통 사람 같다, 그냥 평범하게 보인다, 약간 징그럽다, 같이 있기 부담스럽다, 이쁘고 멋있을 줄 알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정상인들이다, 괜찮다, 심한 환각상태인 것 같다.

* 청소년 동성애는 (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나이가 어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것 같다, 없어져야 한다, 남자는 여자랑 사귀어야 한다, 전혀 도움이 안되고 친구로 지내기 힘들 것 같다, 이상하고 이해가 안됨, 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나이 때는 살짝 정신이 맛이 가서 그럴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혹시 우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싫다, 이해가 된다, 이해하기 힘들다, 청소년이 넘어서는 안될 한계 또는 학생으로서 가지는 의무나 책임만 다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장난으로 그러는 것 같다

* 동성애자 커플은(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섬뜩하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활력을 주고 살아가는데 자괴감이 들거나 어떤 일을 하던 책임질 수 있는 한계라면 상관없을 거 같다, 사람이지만 왠지 나와는 다를 것 같다, 전혀 안 징그럽다, 싫다, 처음엔 좀 그렇겠지만 그들을 알아가다 보

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보기 안좋다, 이해가 좀 안된다, 변태다, 이상하다, 징그럽고 변태같다, 보기 좋지 않을 것이다, 스킨쉽만 안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친구로 지낼 것이다, 미친 짓인 거 같다 그런 x들 딱 질색이다, 친하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도망간다, 알고 있었어 하고 도망간다, 알고 있었어 한 다음에 썩는다, 끊임없는 설득과 세뇌로 이성애자로 바꿔줄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좀 멀리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좀 멀리할 것 같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안 논다, 잘 타일러 준다, 당황할 것 같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어렵지만 되도록 똑같이 대하는 것이...., 멀리하게 될 것 같다

*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중복응답 포함)

☞ 응답내용 : 남들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봐 주는 것,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대하는 시선, 인간으로 대해주는 주변인들의 시선 행동,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평등을 위해, ?,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 것, 이해 관심 무시x 멸시x,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 자유, 이상한 눈길로 보지 않는 시선,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 것을 원할 것이다, 사회의 시선

6. 학교와 청소년 동성애자

지금까지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며 여기에 청소년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결합하는 방식은 그들만의 문제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그러저러 합류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들만의 문제의식과 삶의 방식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한쪽에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무관심으로 외면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말해 주듯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소수자 전체의 인권 문제인 것이다. 모든 성적소수자가 청소년기를 거친다고 할 때 결국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의 연구 결과와 설문들이 보여주듯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 인간이 그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주변의 적극적 지지와 이해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과 편견과 차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청소년기의 동성애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극복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소년기는 학령기와 맞물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말과 학생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대상을 의미할 만큼 그 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하루라는 물리적인 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는 그 공간에 속한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인 삶의 양태를 교육하는 주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면서 다수의 삶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삶으로 위장하여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조직하는데 있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회적 주류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보수적으로 기능하며 사회 유지 및 체제 안정에 기여하도록 구성된다.

이런 주류 학교에서 동성애자의 삶은 다루어지지 않으며,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성애적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하고 변태적이며 불안정한 존재로 취급된다. 때문에 동성애자 청소년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으며, 反동성애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와 또래집단에 의해 소외되고, 감시당하며 결국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학교의 역할을 주류 질서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전통적 기능에만 한정짓는다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더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물론 그 변화는 매우 더디며 그 구조적 특성(매우 잦은 학생의 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된 교사집단)으로 인해 언제나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매 해마다 새롭게 입학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해 가는 학생들의 빠른 이동에 비해 교사들의 인식 변화는 턱없이 느리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사의 인식 전환만큼 빠른 교육의 발전은 없으며 교사 집단의 인식 전환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다 해도 그 과정이 지나는 속성상 현재의 사회적 감성과 학생들의 정서를 따라올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최신의 교육과정이라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인식에 가로막힌다면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와 청소년 동성애자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제도적 장치의 변화보다 우선적으로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당장 너무나 절박한 실정이다. 원하지 않는 아웃팅이나 준비되지 않은 커밍아웃 등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갈등을 빚고 가출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보호 시설은 사실상 그 어디에도 없다. 최근 들어 각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앞 다투어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고 당당한 그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7. 몇 가지 제안들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자 인권학교가 열리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열악한 사회 인식과 인권적 현실에 비추어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이는 동성애 자체를 청소년에게 금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들어 줄 사람,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당장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학교도, 가정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성인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이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금의 노력들은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소수자 인권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자기 단체에 찾아오는 청소년 회원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것도 일상적인 사업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며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등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사 및 청소년 상담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제도 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교육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 전교조나 일련의 교육운동 단체들에서부터 성소수자 이해교육을 실시하자. 대부분의 인권교육에서 얻는 교훈 중의 하나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론적인 설명이나 말보다 수백 배 낫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의 교사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앞으로 그 교사가 만날 수백 명의 아이들과 만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

지만 교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학교 교육에서의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갖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인식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성소수자 이해교육은 성소수자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성애자 청소년에게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한 이질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폭력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며 그것은 반복적으로 악순환된다. 그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청소년 집단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며 그 인권교육에는 성소수자 이해교육이 인권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5. 학교와 동성애³⁾

홍의표 _ 교사,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학교란 어떤 공간인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교육, 특히 학교에 돌리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서는 학교가 변화하는 10대-청소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봉건적이며 폐쇄적인 질서에서 원인을 찾는다.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도 하고,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 과연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학교인가?

물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학교에서 찾지는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고,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의 구조가 짜여진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에서 돌아와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학교는 그렇게 청소년들의 생활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모든 생활들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삶에서 학교가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학교라는 공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학교라는 단어의 용례를 모두 나열하여 그 의미를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 물리적 공

3) 이 원고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초고적 수준의 논의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간으로서의 학교와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활동을 수행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일정한 대인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의 학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본 토론자는 그중에서도 기능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학교를 통해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청소년 동성애라는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은 교육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축적해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고, 인간 스스로의 본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의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 존 듀이(John Dewey)는 단지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반하여 모든 것은 변한다는 상대주의적 지식관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 터득해 나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은 1955년 1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과중심 교육과정⁴⁾을, 1963년 2차 개정에서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1973년 3차 개정에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⁵⁾, 1981년 4차 개정에서는 기능 중심의 교육원리⁶⁾를, 1987년 5차 개정에서는 학생 중심, 과정중심 교육과정, 1992년 6차 개정에서는 국가, 지역,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분담을 특징으로, 1997년 7차 개정에서는 다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물론 말처럼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주로 일본과 미국, 특히 미국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또한 당시 정권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짜여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4) 교육과정의 체제를 '목표-학년목표-지도내용-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체계화,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도덕과 국사 신설, 일본어 신설('73)

6) 가치관 중심 교육의 반성, 국민정신 교육 강조

관계의 장으로서의 학교 : 교사와 학생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맞부딪쳐야 하는 피치 못할 존재는 바로 교사이다. 즉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교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며 학교라는 공간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자기가 거쳐 온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르칠 내용들을 고민하는 게 고작이다. 사실 교사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 또한 그 범주 안에 있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 또한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 개인의 개인적 취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과 범위,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준다. 하지만 입시라는 거대한 교육 통제 앞에서 자신이 가진 교육적 철학과 신념,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학생은 배우려는 사람이다. 물론 개인의 특성과 배움의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겠지만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배워야 하는 위치에 놓인 존재이다. 여기서의 배움이란 명시적 교육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움은 교실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의 배움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평가-시험이라는 통제 방식으로 이 배움의 과정들을 통제한다.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평가 받는 것은 교실 수업의 내용 뿐이다. 이 틀에서 학생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은 둘 다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맴도는 허수아비일 뿐인가. 소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철학에 따라 한계는 있지만 얼마든지 소통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통의 주도권은 아직까지 교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의 권력은 아직 교사에게 더 유리하게 주어져 있다. 이 권력관계의 불평등 속에서 소통의 주도권은 대부분 교사에게 주어진다. 때문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교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학교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여전히 교사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가지는 전통적 역할은 지식의 전달이다. 여기서 교사의 전문성은 지식의 질이나 양적 부분만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방식(교수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학자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훌륭한 교사이지는 않다. 교사의 직업적 특징은 이러한 지식(교육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방법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때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임무이다. 이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교직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가르쳤는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르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종종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자 윤리적 성숙자 혹은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면서 외 부적으로 요구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덧 교사 스스로 윤리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교사는 자신이 가진 윤리적 판단의 잣대를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할 때 교사 개인의 인식적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편의 가치로 학생들에게 강요할게 될 때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우리는 교사들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마도 이런 윤리적 판단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교사의 심리적 요인 때문이지 않을까. 가장 안전한 도덕적 판단은 이미 존재하는 판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한 신문에 청소년 동성애와 관련된 글을 기고한 후에 한 독자로부터 이런 항의를 받았다. '당신이 청소년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교사인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요지의 전화였다. 짧은 전화 통화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내가 한 답변은 이러했다. '윤리적 판단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에 교사가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답을 제시할 수도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학생들에게 정답처럼 윤리적 행동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입장과 태도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필자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다. 나는 교사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윤리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역지를 강요하는 것도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에서 스스로 물어나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현재 교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사실 기존의 토론문을 쓸 때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여기까지 서술해 보았다. 청소년기의 성정체성 고민에 대해서나, 청소년 동성애자가 스스로가 느끼는 학교와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 일반 청소년이 느끼는 인권의 문제 등은 이미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고 교사인 나로서는 그저 교사라는 직분이 가진 현실과 한계, 그리고 극복의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 글은 초기적인 사고의 편린들을 두서없이 모아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과 제언을 한다는 것이 사뭇 긴장되는 일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라는 지위는 학생들의 생각처럼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위치에 비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상당한 권력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 권력은 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학생들과 임의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즉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부르게 평등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일 수 있다. 특히 동성애에 억압적인 학교 현실과 교사의 편견은 떨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는, 특히 교사는 동성애에 무지하다. 아니 사실은 사회가 동성애에 무지하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일반적인 도덕적 편견과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무지한 교사들을 일깨우는 게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는 교사들을 적극적인 연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사를 단지 개혁과 변화의 대상으로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와 변혁을 함께 이끌어갈 주체로서 세우는 것이다. 권력을 빼앗기보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교사들을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사 연수를 부탁하고 싶다. 인권교육 연수를 다니다 보면 의외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배움의 기회조차 없다. 현실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사귄 기회는 더더욱 없는 현실에서 그 무지를 깰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교사 연수밖에 없다. 1급 정교사 연수 같이 교사라면 누구나 꼭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이해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교원노조 교육이나 기타 자율적인 연수 등에 성소수자 이해 프로그램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무작정 의무화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강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는 반감을 갖게 된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의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종종 있다. 때문에 무지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교사들을 적극적인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체 교사를 연대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열린 시각과 인권적 감수성을 가진 교사들을 주축으로 교사들의 연대를 이끌어 낸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교조에는 학생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 위원회에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연대의 방식을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청소년위원회에 성소수자 청소년 분과를 제안하고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에 성소수자 청소년의 문제를 협약 내용에 넣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제안은 다분히 실험적이고 원칙적인 것이다. 현실에서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일단 교사라는 집단을 무지에서 구해내고 연대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정윤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지난 7월13일에 방영된 MBC <뉴스투데이-현장 속으로>의 이반문화 확산 보도는 이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억압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동성애 성향에 무감각해진 아무생각 없는 존재로 표현되었고, 청소년기 가질 수 있는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이성애적인 성적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렸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정보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는 여전히 '음란'과 '유해'한 행위이고 동성애자는 청소년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유해한 집단들이었다. 과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가?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인정하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성소수자들과 다르게 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등의 미디어 보급과 공공영역, 대중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모습은 정보획득에 취약했던 대다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빨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였고 자신들만의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한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동성애에 대해 좀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야오이, 팬픽과 같이 현실과 거리가 먼 매체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만의 환상

과 이미지를 키워 나가게 하기도 하였다. 그런만큼 그동안 숨어 존재하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갖는 정서적, 사회적 특징과 결부되어 자신의 성적체성을 쉽게 오픈하기도 하며 부모나 학교로부터 갖게 된 소외감을 또래집단을 통해 치유받고 싶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을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공간 - 학교, 또래집단, 가족 등 -으로 돌아오면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⁷⁾

짧은 염색머리에 피어싱을 하고 잦은 가출에 술, 담배를 즐긴다면 자신의 성적체성을 의심해봐야 하고 또래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한다. 이는 보수적인 사고로 사회를 통제하려는 기독교의 말이다. 동성친구와 스킨십이 있기만 해도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맞냐, 아니냐'라고 다그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검열의 현실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깨닫아가는 과정조차 포기되어지길 강요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이 학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우팅(Outing)에 대한 불안과 존재감에 대한 좌절을 겪는다. 불안과 좌절에서 오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 사회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시키고 있다.

1) 언어, 물리적 폭력에 노출 : 한국 청소년상담원이 2003년 실시한 조사 중 '가까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부하는 행동(79%)이 수용적 태도(17%)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동료들로부터 가해지는 신체, 언어적 폭력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연구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징그럽다' '정신병이다' '변태다' 등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청소년들은 불과 9.3%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에 대한 답변 중 '이성애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병원가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 '건전한 이성만남을 권장한다' 등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더욱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대답이 많았다. 메사추세츠주 LGBT 청소년 위원회가 행한 조사 중 '학교에서 동성애 혐오적인 언어를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97%가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교사나 또래집단들 내에

서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말을 들었을때 큰소리로 꾸짖거나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자신을 똑같은 성소수자라고 불까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국내 연구(강병철·하경희, 2005)에서도 연구참여대상 중 57%가 욕설 등 언어모욕을 당한적이 있으며 30% 가까이가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과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학교적응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 보건국에 의하면 28%의 LGBT 청소년들이 괴롭힘, 폭력,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 중퇴하고 있다고 한다.

2) 자살 등 심리행동적 문제 : 성소수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자살율이 2-3배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소수자들은 특정 시기가 갖는 심리, 사회적 특성과 자신의 성적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하기에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30% 정도 (매년 50만명 이상) 가 동성애적인 성적체성 때문이라고 하고 48%-76%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하루 45분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매 6시간마다 자살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가족구성원들과의 마찰들을 경험하여 가출, 약물남용, 높은 음주·흡연율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다중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체성이 단번에 '음란'과 '유해'가 되는 세상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육위원회는 현재 HSSSS(Health, Safety and Student Support Service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소년 소수자들(LGBT, HIV/AIDS, 약물, 흡리스 등)이다. 여기 LGBT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자살, 약물, 가출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 LGBT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이다. '학교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10단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성적체성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교육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나 청소년 동성애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다소 소극적인 정부차원의 움직임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염두해두어야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인가

동성애와 청소년이 연관된 문제에 있어 언제나 '청소년 보호과 육성'은 늘 따라다니는 명제이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가치판단할 수 없

7) 강병철, 하경희(2005)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체성 관련 특성과 자살위험성에 관한 연구" 미발표 논문을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MBC보도에서 보여지듯 동성애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적체성을 찾아가는데 있어 유해할 뿐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든 '덜 자란'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당한다. 10년이 넘는 교육기간 동안 이들은 행동과 생각이 제한된 미완성의 존재이자,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육성이라는 명분은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쓰여지는 기득권층의 사고일 뿐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권리들은 청소년들을 비껴간다. 그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 두발자유화, 내신등급제 반대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가 청소년 운동을 만들어나가고 집회를 조직하려 했을 때 이들을 감시하려고 집회 장소에 다수의 교육청 직원과 교사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기득권층에게 청소년 '보호'와 '통제'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단서가 잡히기라도 하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머리 속까지 검열, 통제하려 든다. 성인들의 삶 역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한다는 윤리관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동성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중 (일부) 청소년에게 유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가설은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뒤바뀌어 버린다.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는 윤리적 공포심을 조장해 국가, 학교가 개입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검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끔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둔 노동자 부모들은 자신이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며 국가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에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방관한다. 또래 동료들은 편견으로 가득찬 제도교육으로 가지게 된 동성애혐오증(homophobia)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이중, 삼중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기득권층이 말하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은 분명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단지 그들이 가지는 윤리적 가치관을 개입하여 사회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노동계급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제는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세대들과 교사들을 훈육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시키라는 사회적 명령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 성인들 스스로 자기검열하는 하라는 무의식적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소수자 인권은 쉽게 묵살되어지고 사상,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는다. 청소년이라는 약한 고리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물론 모든 성소수자들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성적체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性은 그들 스스로의 인식과 자율성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무의미한 성교육체계와 성인 지배구조 속에서 선부르게 청소년들의 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위험과 착취가 그들 바로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性이 성인이 결정하고 지배하는 소유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들의 性은 단지 일정 나이가 되면 법, 제도가 선불로 주는 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다. 그것은 일방적 교육과 보호라는 규제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지 1년!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4년 동안 싸워 얻어낸 성과는 실질적인 차별철폐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당연한 가치라고 여겨져 왔던 '동성애=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음란한 행위'라는 해묵은 공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성소수자 운동 진영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0대 동성애자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차별실태를 접수받거나(한국레즈비언 상담소), 국감에서의 문제제기(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발간 활동(한국 성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 캠프 및 교사들과의 간담회 개최(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체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거리 캠페인(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청소년 이슈로 모아지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성적체성 자기 결정권을 통제받고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운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래 동료들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게되는 학교에서의 폭력, 자살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GAY - Straight Alliances와 같은 지지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이성애자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적이 아니고 모든 성인이 청소년들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청소년기 갖게되는 다양한 억압적 요인을 함께 맞설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언제나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총체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과 함께 할 때만이 빛을 볼 수 있다.

MBC의 청소년 동성애자 혐오 보도, 이제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행동할 때이다.

이경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지난 7월 13일 방영된 MBC <뉴스투데이>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을 '10대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왜곡하고, 동성애자를 혐오와 금기의 대상으로 보도했다. 뉴스투데이의 보도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극심한 억압 속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악랄하게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4분짜리 방송일 뿐이다? 언론의 보도는 굉장한 파급력을 지닌다. 특히나 MBC 같은 공중과 TV는 더더욱 그렇다.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뉴스'의 허울을 뒤집어 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리에서 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간 한 여학생은 부모로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그가 실제로 레즈비언이었던 아니던 간에, 이 사회에서 성적체성을 추궁 받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공격했다. 이들의 외모, 특징 등을 근거 없이 일반화시키고 마치 동성애자들을 하나의 조직처럼 '이반 소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가시적인 표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요즘 여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검열'이 행해지는 현실과 정확히 겹쳐진다. 방송은 마치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색출하여 뿌리 뽑으라"고 선전을 해대는 것 같다. 학교에서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제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현실인가.

뉴스투데이는 이 사회가 동성애자에게 가하는 온갖 차별을 그대로 답습했다. 동성애가 오래전 정신질환 항목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의 동성애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치부했다. 이는 여전히 학교 성교육에서도 동성애

를 공공연히 '이상 성행동'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동성애 금지'는 이 사회에서 약자인 청소년에게 더욱 쉽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뉴스투데이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 사이트에 노출되어 동성애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4년 초, 청소년 보호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오랜 기간 동성애자들의 투쟁으로 삭제되었다.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못박은 법제도를 우리 손으로 없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우리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동성애자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MB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MBC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동성애자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보도의 주된 공격대상인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공분을 모아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분출시키지 못한 것일 것이다. 물론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말미암아 행동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은 매우 실현되기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각 동성애자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주변 친구들을 모으고 공분을 모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더라면, 청소년 동성애자 자신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 같다. 나아가 이는 MBC의 혐오보도 문제를 넘어, 지금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활동 자체가 바로 MBC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지라도 말이다.

지금 많은 동성애자 단체들이 청소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현재의 상황과 때마침 터진 청소년 동성애자 왜곡 및 혐오보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침묵 속에 억눌려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바로 지금, 천천히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청소년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순간이 아닐까?

동성애 혐오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버랑 끝으로 내몬 MBC의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2005년 7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방영된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현장 속으로>는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를 마치 탈선을 한 청소년 취급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반인권적 보도를 했다.

1. MBC <뉴스투데이>는 '이반문화'에 대해 보도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용어인 '이반'(이성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만든 용어)을 "이성에 반대한다"는 사실 무근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 <뉴스투데이>는 동성애가 오래전 정신질환 항목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내세워 청소년들의 동성애는 '또래 집단에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동성애를 사람의 통합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철없는 시절 휩쓸린 '행위'로 치부하는 것으로,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보도행위다.

3. 또한 "전(前) 이반 소속 여중/고생"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반이 일종의 비행조직인양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10대 레즈비언에 대한 위화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보도행위로 말미암아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갈수록 고립되고, 버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4. <뉴스투데이>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도윤리마저 버렸다. 마치 범죄 현장인양 레즈비언 전용 바(bar)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잠입해 촬영했으며, 성인업소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전용 카페"라고 보도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다. 또 많은 10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켜 이들을 위협에 빠뜨렸으며, 10대 레즈비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허락 없이 게재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5. <뉴스투데이>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으로 취급했다. 동성애자 인권행사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젓이 붙어있다"고 보도하여, MBC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심각한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6. <뉴스투데이>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반'을 금치어나 성인인증 단어에서 해제시킨 것을 두고 "일반학생들마저 동성애적 성향에 무감각해지"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청소년 보호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의 성과에 대한 위협이자 공격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조항에 대해 삭제권고를 한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7. 청소년 동성애자는 학교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현실 속에 있다. 학교 성교육과 교과교육은 이성애 중심적이며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이자 성적 퇴폐의 결과로 묘사한다. 또한, 학교에서 행하는 '이반검열'은 청소년 동성애자를 아예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교사가 부모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아웃팅 시키고, 친구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퇴하게 만드는 학교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뉴스투데이가 짧은 머리의 여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도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반검열'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입시경쟁과 감옥 같은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탈선'과 '비행'의 하나가 10대 여학생 이반 문화인 양 보도한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획일적인 입시제도와 반인권적 학교 교육으로 억압 받는 모든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뉴스투데이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을 접해서는 안 될 유해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는 동성애자 모두의 삶에 대한 위협이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뉴스투데이의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따라서 7월 18일까지 다음의 요구 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갈 것이며, 국내외적인 여론화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MBC는 동성애자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0대 동성애자들의 신변을 위협한 반인권적 보도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MBC는 해당 제작진과 취재진을 징계하라!

하나, MBC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신변을 위협 받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본 방송의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MBC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에 대해 '동성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MBC는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을 마련하라!

2005년 7월 14일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모임 붉은이반,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여성이반포털사이트 티지넷, 여성주의저널 일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평화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L 인권단체를 준비하는 새싹 2005

MBC는 뉴스투데이 '이반 문화 확산' 보도가 반인권적이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지난 7월 13일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이반 문화 확산"이라는 보도에 대해 15개 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18일까지 공개 사과 요구를 하였다. 현재 MBC 뉴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반문화 확산' 보도의 동성애 혐오와 무지에 분노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측은 사과는 커녕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MBC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문제가 된 보도의 일부분만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삭제했을 뿐, 시종일관 묵묵부답의 자세만 유지하고 있다.

적반하장 격으로, 7월 14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그 방송을 "청소년 동성애자를 탈선한 청소년으로 취급한 바가 전혀 없다"며 '동성애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중립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현상에 대해 동성애 성향이 아니라 청소년기 일시적 현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인터뷰로 실었다"며 "그런 현상이 좋거나 나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측에 밝힌 MBC 관계자의 설명은 해당 뉴스 제작진의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한국 성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성명서를 통해 그 방송이 얼마나 동성애 혐오적 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MBC 측은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치 중립적 보도'이란 허울로 문제를 외면하려는 MBC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본 보도를 제작한 외주제작업체 '시스템비전'의 무지하고 반인권적 보도 제작 행태와 더불어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MBC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1. 문제가 된 보도에서 '이반'이란 단어 대신 '동성애' 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때에도 가치평가 없는 중립적인 보도라 발뺌할 수 있는가?

방송 첫 머리부터 '이반' (이성애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동성애자인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란 단어에 대해 '이성에 반대한다'는 식의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는 등 무지를 드러내던 MBC 측은 방송 내내 시종일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일시적인' 현상이며 심지어 '잘못된 유행'이라는 태도를 고수하였다. "전(前) 이반 소속 여중/고생"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반이 일종의 비행조직인양 묘사하고, 또한 '이반'이었음을 후회하는 학생들을 마치 죄인인양 묘사하며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MBC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동성애 문화 확산"이란 제목을 들고 "전 동성애 소속"이란 표현을 쓰며 방송을 했다면 동성애에 대한 가치평가 없이 중립적인 보도라 발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인권 포스터를 두고 '버젓이 붙어 있다'고 표현하고 포탈 사이트 검색에서 '이반'이 금지어나 성인인증 단어에서 빠진 것을 두고 "일반학생들마저 동성애적 성향에 무감각해지"게 만든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동성애가 사회에 드러나서는 안되는, 혐오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2. 보도에 나온 전문가 분석은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MBC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현상에 대해 동성애 성향이 아니라 청소년기 일시적 현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인터뷰로 실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말로' 동성애 성향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기준'들을 세우려는 노력은 지난 백여년간 무위로 그쳐 왔다. 한 개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본인밖에 없으며, 이는 인간으로서 고유하게 가져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성적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MBC 보도의 전문가 인터뷰는 이러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또래 집단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대부분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더더

욱 무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민 상담을 또래 모임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MBC 보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일시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낙인을 찍고 있다.

3. 보도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도 사과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성인전용인 레즈비언 바를 마치 범죄현장인양 잠입취재하여 10대 전용 업소로 탈바꿈시켜 보도하고, 수많은 10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켜 아웃팅 및 명예훼손 위협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10대 여성 이반 카페에 몰래 들어가 허락없이 게재된 사진을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 놓고도, MBC 측은 아직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아웃팅의 위협에 놓여 인권단체 측에 상담을 요청해 오는 10대 이반들도 적지 않다. 방송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 버린채 인권침해를 자행했음에도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접해서는 안 되는 유해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그릇된 유행으로, 죄인으로 묘사한 보도행태에 수많은 한국 성소수자들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보도로 인해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청소년 성소수자 단속'을 벌일 것이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 다시 자신의 존재를 교사와 학부모들에 의해 '검열'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번 보도가 물고 울 파장에 대해 조금도 심사숙고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뉴스투데이 보도 직후 즉각적인 사과와 이후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MBC 측의 태도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한다.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청구, 국정감사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도의 제도적 마련 등 법 제도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하나, MBC는 동성애자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0대 동성애자들의 신변을 위협한 반인권적 보도에 대해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MBC는 해당 제작진과 취재진을 징계하라!

하나, MBC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신변을 위협 받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한 본 방송의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MBC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에 대해 '동성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MBC는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을 마련하라!

2005년 7월 25일

-MBC뉴스투데이 10대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남성이반포탈사이트 이반 시티,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모임 붉은 이반, 부산여성성소수자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여성이반바 레스보스, 여성이반바 마녀, 여성이반클럽 LAVA, 여성이반 포탈사이트 티지넷,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제8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기획단,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 모임 'AnyFren', L 인권단체를 준비하는 새싹 2005, 2005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준비단), 국제연네스티 한국지부, 다름으로꿨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부문위원회(여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니네트워크, 여성이반 문화웹진 L Zine, 여성주의저널 일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다함께,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한국성폭력상담소